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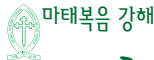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화가 임하는 신앙 스타일 1

(마 23:13-22)

## The Faith Style of Meeting with Woes I

(Matt. 23:13-22)

성경은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입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잔잔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유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7번이나 저주를 외치십니다.

### 1.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13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으며 율법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경건의 겉모습만 있을 뿐 실상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한 겉모습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오히려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 2. 그들은 사람을 찾아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찾아 다니는 것과 같은 열심을 보였습니다. 15절의 교인은 '개종자'를 의미하는데 그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고 성전세를 내는 등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전통과 규범을 따르며 유대화 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무지한 이방사람을 끌어들이어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고 왜곡된 진리를 배우도록 하여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 3. 그들은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의 예물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16-22절). 이것은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성전과 제단은 무시해도 되지만 제단에 드리기로 한 제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성전이 크냐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헌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아니면 그 제단에 올리는 제물이 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아 진실 되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Bible is the blessed God's word and blessed are those who read it. But the blessing explained in the Bibl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world. This is the holy blessing that is given by God. No matter how heavy the world rolls and pitches, the fact that we accompany God, and will enjoy the peace of the calm heaven is the real blessing that is given by God.

Jesus Christ who is the fount of blessings and did not reject to die on the cross in order to give us the blessings. He cried out the curse seven times to the teachers of law and the Pharisees.

### 1. Because the teachers of law and the Pharisees closed the door of kingdom (v. 13)

The teachers of the law are fully aware of God's word and are the greatest authority about the law, and the Pharisees are so enthusiastic and devoted to observe God's word completely that nobody can follow them. After all, they externally show the piety but they live their lives without knowing how much they violate law. Nevertheless, they like those who give them compliment and respect for their external piety.

And they taught that those who should have the figure of piety like themselves can be saved, but they rather closed the door of sal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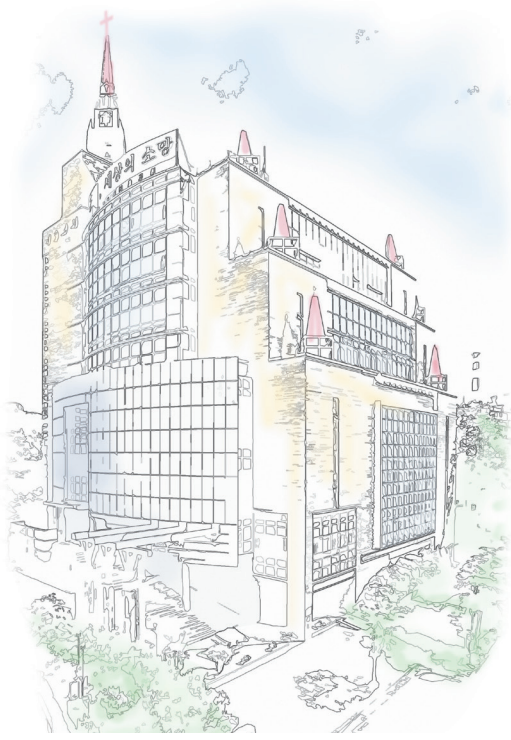
### 2. Because they find a convert and make him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they are (v.15)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showed their enthusiasm when they traveled over land and sea in order to win converts. The convert in the verse 15 refers to a person who adopts a different religion. Those converts who were circumcised and paid temple taxes followed all of the Jewish tradition and rules in which the Pharisees taught them and made them Jewish. In other words,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drew aliens who were ignorant of the law and taught the wrong idea and made them learn the distorted truth. After all, they made them the son of hell.

### 3. Because they are the people who swear in vain

Though the Pharisees kept their Temple swear, if anyone swears by the gift on the temple, he should be bound by his oath (vv.16-22). This means that they ignore the Temple and altar which are not directly useful to them, but the gift offered on the altar is the greatest. Jesus asked for them, "Which is greater, the Temple, or offerings in the Temple. Which is greater: the altar, or offering on the altar." They sneer and ignore God who is not seen and does not punish them without delay.

My beloved Christians,  
Don't we have any form of faith like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By receiving the real blessing from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blessed people being truthful and humble and loving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교구별 특별찬양

## 5월 13일 1, 16교구를 시작으로

체육대회와 함께 격년제로 실시되어 오는 교구찬양대회가 교구위원회(위원장 : 하인선 장로) 주관으로 교구목사 담당 교구별로 연합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으로 드러진다.

교구목사가 섬기는 교구별로 연합하여 몇몇 교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형식으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드리게 된다.

모든 교구 가족들이 미리 모여 연습할 때부터 서로 호흡을 맞추어 단합하는 기회가 되고 자기 교구만이 아니라 같은 교구목사가 섬기는 인근 교구와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좋은 화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모든 교구원들이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순서는 다음과 같다.

- 5월 31일: 1, 16교구(유문건 목사)
- 6월 7일: 2, 9, 11, 15교구(황광 목사)
- 6월 14일: 3, 8, 14교구(조원영 목사)
- 6월 21일: 4, 5, 6, 7, 10교구(박영준 목사)
- 6월 28일: 12, 13교구(장석남 목사)



# 홍해작전 준비 시작하다

##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2015년 홍해작전 준비가 오늘 오후 3시 609호에서 홍해작전 참모회의를 모임으로써 시작된다. 2015년 홍해작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이다. 기간은 6월 6일(토)부터 6월 25일(목)까지이며, 시간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홍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

# 장년부 성경공부

장년부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김철홍 협동목사가 4월 중순에 연구학기 차 출국하는 관계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하경택 교수가 4월 19일부터 8주간 동안 욕기 특강을 담당한다. 하경택 교수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하경택 교수

- 1967년 7월 17일 생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 전공(B.A.)
-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 신학 전공(M.Div.)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구약학 전공(Th.M.)

- 독일 Bochum대학 신학부 신학박사학위 취득(Dr. Theol.)
- 현 장신대 구약학 교수

# 2015년 향존직 선거

5월 17일(주일) 공동의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5년 향존직 선거에서 금년에는 장로만 선출하기로 4월 8일(수) 회집된 임시당회에서 결의하였다. 선출방법은 1차 투표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사, 권사 선거는 2016년도에 실시 예정이다.

공동의회 전까지 장로 예상 후보자는 순례자에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

봄이 되니 나눔의 집에 성도들의 발길은 빈번한데 상품의 구색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우리집 배란대에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놓여있거나, 혹은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이 옷장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눔의 집으로 보내주세요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4)

### (문 164)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대한 4복음서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활 자체에 대한 역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답) "우리 주님의 부활사건에 대한 4복음서의 기록은 각각 중요한 의미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4복음서 중 어느 것도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각각 그 사건의 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4복음서의 기록들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 세 여인들이 전날 해질 무렵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니고데모와 요셉이 이미 시체에 향을 사용했지만 보충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1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매우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또는 아내)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엔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눅24:1) 마태복음엔 두 마리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마28:1).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출발해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눅24:1, 요20:1). 그러나 마가복음 16:2에서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습니다. 성 밖 이미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천사는 인봉한 천사의 모에 대해 4복음서는 다양하게 형용하였으나 그것은 초자연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조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마28:1-6)

누가는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눅24:5-6)고 마태의 기록과 같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28:6)고 한 말씀을 막16:6에서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약간의 어순이 달랐다고 해서 그 진정 성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눅24:6-7에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같은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회상하고 빈 무덤에서 요한 마가의 집에 모여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마태), 새벽에(누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요한)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으나 이는 이문융합(異文融合)으로 복음서 기록자들은 서로 알고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활용했다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갈릴리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먼저 보았다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이 있다는 것에 4복음서는 일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교구특별찬양을 통하여 각 팀에 속해 있는 교구 성도들이 다함께 한자리에 모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때에 찬양을 통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며 교구가 단합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간의 큰 기쁨을 체험하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대상 2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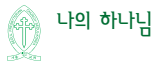
하인선 장로 (교구위원장)

우리교회는 격년제로 실시해오던 전교인 체육대회와 교구특별찬양을 2015년도에는 교구위원회 주관으로 교구별 특별 찬양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교구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교구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정해진 순서대로 주일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5월 마지막 주일(5월 31일)부터 6월 마지막 주일(6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팀마다 2곡씩 찬양 드리되 2곡 중 1곡은 반드시 찬송가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교구찬양대회 사진 : 이준태 집사



##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장현천 집사 (13교구)

지난 2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임종하시고 한 시간 남짓 후에 도착한 저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몸을 만지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투병하시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며 아버지에게는 늘 평안이 넘치셨습니다.

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병간호하던 여동생과 어머니도 세상 속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월 18일에 입원해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병상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척이나 사모하셨으며 기도해 주는 걸 너무 좋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013년 5월 뇌경색, 8월 갈색세포종양 수술 후 2014년 11월 중순경 말기 암 선고를 받으시고도 좀 더 살고 싶으시다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지만 고통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으니 기쁨으로 보내 드리렵니다. 그간 장석남 목사님과 다락방 식구들이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시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남 2녀 중 장남입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 못한 남동생 1명과 여동생 1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기 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평온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동생들의 영혼구원도 제 몫입니다.

아버지가 작년 11월 말기암 선고를 받으실 때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게는 더 큰 소원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질병, 고통과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것과 고통도 기쁨이요, 죽음도 삶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 봄맞이 대청소

지난 주 4일(토) 스테반회는 봄을 맞아 주차장 대청소를, 8일(수)에는 보배 전도회(회장 : 김경애 집사)가 본당 대청소를 담당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병무  
은퇴장로  
(12교구)

지금 바라보는 심정으로 마구 외쳤습니다.

타다 남은 부지깅이 같이 쓸모없는 여생이라고 푸념하는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비록 7,8십을 훌쩍 넘긴 노구들이지만 쓰임 받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연습 현장으로 천국이 되어버리

# 은빛찬양대의 호산나

금년 종려주일은 은빛찬양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은빛찬양대원 모두는 2천 여 년 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새끼에 의지하고 무거운 한걸음 한걸음을 옮기셨던 그 모습을

는 502호실입니다. 한 달에 한번 첫 주 수요일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은빛 찬양대의 모습이랍니다. 마치 안성맞춤으로 보내주신 박래경 지휘자가 다정스런 목소리로 “안녕 하십니까?” 하는 90도인사로부터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된답니다.

우리 은빛찬양대가 2000년도 창설 이래 열다섯 살이 되어야야 본당 은 성도들 앞에서 특별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중

분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더욱 감사가 넘쳤답니다. 찬양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에 먼저 은혜가 되고 거기에 열정이 차고 넘치는 찬양으로 금상첨화가 된다고들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호응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은빛 찬양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만 65세 이상 남, 여 성도입니다.



##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김지영 성도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미국 오벌린음대(학사)와 맨하탄음대(석사), 이스트만음대(석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김지영 성도는 오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시편 40편”, “사명”을 연주하며 반주는 미국에서 함께 공부한 콰에림 선생이 담당한다.

##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3일(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독교운동본부 평신도지도자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연석회의에서 설교한다. 15일(수) CTS현신예배 설교한다. (녹화된 예배프로그램은 19일(주)오전11시30분 방영된다.)

■ 연주회 : 4교구 고성전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그랜드오페라 갈라콘서트' 4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한전아트센터

■ 독창회 : 5교구 구민영 집사(호산나찬양대 지휘자) 소프라노 구민영 독창회, 4월 16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일식당봉사 : 모세 선교회(4.12) 이삭 선교회(4.19)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나의 하나님

# 나의 삶을 크리스찬답게



김 휘 성도  
(청년1부)

지난 4월 5일 주일 하나님 전에 나아가 순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내 영과 육의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님 앞에서 매일 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순결서약식이라고 하면 성적인 순결부터 떠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를 주님께 순결한 제물로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육신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나의 영은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나약함

으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순결서약식을 통해 나의 영육을 깨끗이 지키고 싶다고 주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며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나의 삶을 크리스찬답게 살게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주세요, 이전까지는 사탄의 방해에 쉽게 무너졌다면 지금부터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번 순결서약식을 통해 영과 육으로 거듭나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한 순결서약식

사진 : 최영철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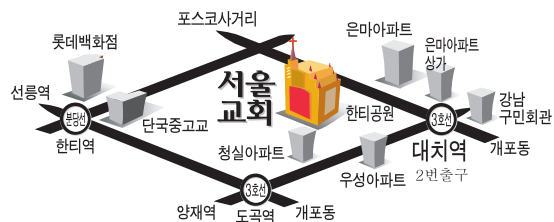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구별 특별찬양 준비를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2. 4월 19일 장애인주일을 맞으며 우리 모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3.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30분
	II 부 예 배	오후 1시 30분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